

경남농기원, 일본 만감류 전문가 초청 교육 성료

현장 컨설팅 병행...실질적인 재배기술 향상 중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기후변화 대응과 도내 만감류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문가 초청 재배기술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남농업기술원 농업기술교육센터(ATEC)와 합천군 농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만감류 재배 농업인과 재배 희망 농업인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이론 강의와 현장 컨설팅을 병행해 실질적인 재배기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

강의는 일본 미에대학교 대학원 생물자원연구과 오쿠다 히토시(Okuda Hitoshi) 교수가 맡았다. 오쿠다 교수는 40여 년간 감귤류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만감류 개화기 이

후 재배 관리 전반으로 구성됐다. 1일 차에는 수상 진단·전정, 착과 관리, 수분관리 등 이론교육을 다뤘고, 2일 차에는 수분 관리와 온도 관리 이론교육에 이어 합천군 삼가면 농가를 방문해 현장 컨설

팅을 실시했다. 경남 지역 만감류 재배는 레드향·천혜향 등을 중심으로 107 농가, 23ha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가능 지역 확대되면서 만감류에 대한

농업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양권 농업기술원 미래농업 교육과장은 "이번 교육이 도내 만감류 재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맞춘 기술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만감류이론교육

고양시,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완료...추가 확산 차단 총력



▲고양시 과수화상병 긴급방제

관내 정원수 식재지 과수화상병 발생 대응

고양특례시는 관내 정원수 식재지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예방·방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27일 신고 접수 후 간이진단, 현장 진단, 유전자 분석 등을 거쳐 발생을 확인하고 즉시 초동 대응에 나섰다. 시는 발생 직후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

향을 협의했다. 발생지 내 식재 수목에 대한 공격방제를 추진하고 매립 및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또 현재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권역별 예방·방제 체계를 가동해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약제를 추가로 살포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대상농가 전수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과 농작업자는 작업 전후 소독, 자가예찰, 영농일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과수화상병의 추가 발생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예방·방제와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영덕 기자
press582@nonguplimes.com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속속들이 세시풍속' 전시 개최

농경문화와 밀접한 전통 세시풍속 가치 재조명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1층 농업홍보관에서 '절기 및 세시풍속 전시(부제: 속속들이 세시풍속)'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존 '절기 및 세

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전시 영역으로 확장해 농경문화와 밀접한 전통 세시풍속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우리 고유문화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절기 문화와 세시풍속을 소개하며 부럼, 장포포, 호미걸이 등 관련 소품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즐길 수 있는 '꽃점 운세 보기' 등의 상시 체험도 운영한다. 특히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은 전시 연계 시민교육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세시풍속 '단오' 체험을 운영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도심 속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번 전시·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단양군, 우량 단양마늘 생산 기반 다진다

2026년산 종구전문생산농가 9곳 최종 선정

단양군이 단양마늘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량종구 생산·공급 체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2026년산 단양마늘 우량종구를 생산할 종구전문생산농가 9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3개 농가에서 올해 9개 농가로 대폭 확대된 규모로, 고품질 단양마늘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종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종구는 마늘의 품질과 수확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우량종구의 안정적인 확보는 단양마늘의 균일한 품질 유지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1개 농가를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외부 전문위원 3명을 위촉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장심사에서는 타 품종 혼입 여부, 흑색썩음균핵병 발생 여부, 재배포장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한지형마늘의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종구 관리 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는 마늘연구회 회원들이 참관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

했다. 최종 선정된 9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우량종구는 오는 8월 중 약 11톤 규모로 수매될 예정이다. 수매된 종구는 9월 중 관내 마늘 재배농가에 공급돼 단양마늘의 균일한 품질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윤 단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종구는 마늘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농가를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단양마늘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량종구 생산·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진아 기자
mida0210@naver.com

경기도청 내 '경기도담뽕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일반 우수 농산물부터 친환경 품목까지

수원시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도청 청사내에 신선했던 안전한 경기도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광교경기융합타운 보행몰에 '경기도담뽕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

범운영(임시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월 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통해 결제·물류 시스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장 운영은 비영리단체인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도내 농가가 수확한 신선한 일반채소·과일류부터 고품질 친환경 인증 농산물, 지역 가공식품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광역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된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농업인은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상생형 유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장 내에는 단순 흙집이 있거나 크기가 맞지 않아 시장 출하가 어려웠던 '친환경 아까운 농산물'을 활용한 즉석 주스 코너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건강한 주스를 즐기며 가치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

아울러,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에는 구매 가격의 5%를 탄소중립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소비자 혜택도 제공한다.



▲경기도청

강릉시농업기술센터, 농촌일손돕기 추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인 과수 결실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30일(토) 주문진읍 소재 북송아 과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

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손 돕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1만 평 규모의 북송아 농장에서 적과 작업(열매숙기)을 지원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

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실질적인 힘을 보태고자 마련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고령·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제분

Enriching your life

대한제분은
지난 70여년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즐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